

부모역할 전환 후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f parental strain on the marital adjustment of employed mothers after transition to the parenthood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고 선 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장

Seonju Koh

Seoul Women's Foundation. Program Direct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strain and marital adjustment of employed mothers after their transition to the parenthood, and to investigat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The parental strain variables (physical strain and emotional strain) appear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for employed mothers with first baby. The analysis on interaction effect indicates that social support can be a positive buffering indicator. A comparison reveals that mothers with high physical strain have significantly higher marital adjustment than those with low strain. But in the context of high social support, the difference of marital adjustment between the two mothers is reduced.

Key Words : parental strain, marital adjustment, social support, buffering effe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원간에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유발하는 가족 스트레스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뿐 아니라 가족생활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범적인 사건이나 예측할 수 있는 생활사건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첫 아이의 출생으로 인한 부모됨은 부부에게 상당한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며 성장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최초로 하나의 단위로써 대응해야 하고 적응해 가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 은퇴,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부모기 전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중요한 가족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특히,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경험한 후 직업역할에 복귀해서 이를 양립해야

하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접근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감소 혹은 완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희,1998; 이명신,2001 ;최은규,2003).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됨 역시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중의 하나이므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더 이상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경험해야 하는 생애과정중의 당연한 결과이기보다는 신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개입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 Corresponding author: Seonju Koh
Tel: 02)810-5031, Fax: 810-5100
E-mail: sjkoh@seoulwomen.or.kr

의 지원이 개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보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가 정책은 실제 개별 가족들에게는 피상적인 접근으로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외부에서의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인 부모 역할 긴장감에 초점을 두고 이 긴장감을 분리한 선행연구(고선주,1996)에 기반하여 정서적, 신체적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체적 긴장감과 정서적 긴장감이 서로 다른 측면이라는 가정 하에 보유 정도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결혼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역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모기 전이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완충작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에서 동일한 작용을 하는지 혹은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취업과 동시에 부모기에 적응해야 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를 중심으로, 부모 역할 긴장감을 이해하고 결혼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밝힘으로써 이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취업모의 부모기 전이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지지 체계의 유용성을 입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 1) 부모기 전이후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은 결혼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수준에 기반한 집단분류에 따라 취업모의 결혼적용은 차이가 있는가?
- 3) 사회적 지지는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갖는가?

II. 관련연구 고찰

1.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부모로서의 긴장감은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모가 부모기 전이후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 부부관계에 관련한 어려움보다는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긴장감이다(고선주,1996). 즉 긴장감이란 부모가 된 이후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가 느끼는 부담감, 신체적인 곤란함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부모기 전이 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고선주·옥선화,1994,1997; 박숙자,1991; 이숙현,1990)에서도 이러한 부담감이나 긴장감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사회에서의 며느리 역할은 가계를 계승할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부모기 전이과정을 통해 불완전한 자신이 지위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로 삼았다. 따라서 부모역할전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였기에 주로 신체적인 측면에서 부모됨의 어려움을 접근한 연구(박숙자,1991; 이숙현,1990)들이 먼저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부모됨을 선택적 역할로 수용하려는 변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긴장감 역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고선주,1996)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정현숙의 연구(1997)에서도 부모역할수행에서 오는 좌절감, 긴장감, 성공, 걱정 등의 요인으로 부모역할긴장을 측정 한 바 있어 정서적 측면에서의 긴장감이 분리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주로 부부관계에 초점을 둔 가족 관련 연구에서 접근된 개념이라면 자녀양육 담당자로서의 부모 존재에 비중을 둔 접근에서는 주로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나 양육곤란도의 개념을 긴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갑작스런 역할 전환 후 나타나는 긴장상태라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김기현·강희경,1997; 유우영 외,1998; 전춘애·박성연,1996)은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의 부모역할 전환에서 나타나는 긴장감만을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편이다. 유우영 등(1998)은 아동기와는 별도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

어야 하며 같은 유아기라 하여도 '보호'의 역할이 요구되는 유아기 초기와 '양육'의 역할이 주로 요구되는 유아기 후기의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계별 차이는 부모역할 전환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어려움만을 국한하여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자녀양육 스트레스보다는 역할전환 후의 적응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부모로서의 긴장감에 초점을 두고 부모역할 전환 후 취업모가 느끼는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선행연구(고선주,1996)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으로 나누어 각기 결혼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지지가 이들 긴장감을 완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사건은 개인의 심리적 · 신체적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요인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유우영 외,1998). Gottlieb 와 Pancer(1988)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인지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차원에서의 지지 등 4영역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는 도구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Florian & Dangoor,1994).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고선주,1996)에서도 서비스 지지와 경제적 지지로 분류한 도구적 지지의 자원 기능이 입증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역시 서비스 지지와 경제적 지지에 국한된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논의할 때 한번쯤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어디에서부터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적 지지는 분명히 타인으로 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할 전이의 원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부관계를 타인으로 규정해서 사회적 지지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번쯤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만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부모기 전이는 부부가 공유하는 일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적 지

지를 다룬 연구(유우영 외,1998; 이희정 · 이숙현,1995; 전춘애 · 박성연,1996)에서는 사회적지지에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입장에서도 부모기 전이는 스트레스를 주는 전이과정이므로 부부관계 요인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이 출산을 담당하는 개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만을 중심으로 두고 부부관계조차 사회적 지지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채 자녀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암묵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저하되거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간접적으로 자녀양육의 주담당자를 여성으로 그리고 남편은 이에 대한 지지를 주는 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을 제외하고 가족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지로 국한하였다. 남편과의 관계를 제외함으로써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로서의 긴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부부관계 요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보다는 공동의 역할수행 단위로서의 부부라는 개념으로 규명해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다루어지고 있다(Jackson,1998; Kostelecky & Lempers, 1998). 특히 일반적으로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김희순,1988; 이한우,2002; 이한우 외,2001). 또한 장애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를 연관 짓는 연구들(이숙 · 유우영,1998; 이정순,2003; 유우영 외, 1998;전춘애 · 박성연,1996)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현심 · 김지선,1997; 전춘애 · 박성연,1996)를 보면, 사회적 지지가 부모역할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 스

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이정순의 연구(2003)에서도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매개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우영 등의 연구(1998)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제한점은 유아의 연령이 다양화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부모 역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중재효과(최은규, 2003)나 완충효과(김만지, 2002)를 설명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양육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완충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중역할 부담을 안고 있는 취업모의 경우 특히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역할조정 및 가족 체계 변화라는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첫 자녀를 출산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업모로 한정하였다.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318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자녀의 개월이 12개월이 넘는 경우와 부실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84명의 취업모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령은 23세부터 34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28세로 과반수가 넘는 68.2%가 25세에서 29세에 해당한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7.1%인 103명이며 대졸 이상이 55.4%인 157명이다. 직업의 경우는 생산·서비스직이 17.2%인 47명, 전문·관리직이 72명, 사무직이 45.3%인 126명이다. 자녀가 딸인 경우가 44.4%인 126명이며 아들이 55.6%인 158명이다. 가족형태의 경우 73.1%인 208가족이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8.1%인 51가족, 친정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4.1%인 12가족, 형제자매등과 동

거하는 경우가 4.9%인 14가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로서의 긴장감

부모로서의 긴장감은 정서적인 긴장감과 신체적인 긴장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서적인 긴장감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며 신체적인 긴장감이란 실제적인 자녀양육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피로도와 어려움을 뜻한다. 각기 8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긴장감 척도는 선행연구들(고선주·옥선화, 1994; 이숙현, 1990; Scott & Alwin, 1989)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8점부터 32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긴장감이 높은 것이다. 정서적 긴장감의 신뢰도는 $\alpha=.75$ 이며 신체적 긴장감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1$ 이었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척도는 취업모가 받는 도구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고선주, 1990; Florian, Dangor, 1994; Gottlieb, Pancer, 1988)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후 서비스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지지란 평상시와 자녀가 아플 때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전반적인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추가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지지는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용품등의 구입에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항과 전반적인 지지 문항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 모두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3점부터 9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재조사법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서비스 지지의 경우 $r=.80$, 경제적 지지의 경우 $r=.77$ 로 나타났다.

3) 결혼적응

결혼적응의 측정을 위해서는 Spanier(1976)의 DAS (Dyadic Adjustment Scale)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연구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결혼적응은 각기 응집, 만족, 일치, 애정표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집을 측정하는 5문항, 만족을 측정하는 10문항, 일치를 측정하는 13문항, 애정표현을 측정하는 4문항의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적응 총 점수는 0점부터 151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

은 것이다. 신뢰도는 응집 영역이 $\alpha=.82$, 만족 영역 $\alpha=.85$, 일치 영역 $\alpha=.85$, 애정표현 영역이 $\alpha=.64$ 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취업모의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의 빈도분석을 통해 중앙값을 파악한후 이를 상하 집단으로 나눈후 이 조합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일원분산분석과 schéffe 검증을 통해 평균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분석은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부모역할전환후의 취업모의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 전환 후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적응을 종속변수로,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에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결혼적응에 대한 부모로서의 긴장감 회귀 분석¹⁾

	취업모의 결혼적응			R ²
	Beta	b	t	
상수		144.77	27.76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	-.18	-.84	-2.96**	16.3
부모로서의 신체적 긴장감	-.29	-.95	-4.68***	
Durbin-Watson 계수			1.90	

** p<.01, ***p<.001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으로 나누어서 각기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 모두 취업모

의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긴장감 보다는 신체적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긴장감은 전체 결혼적응의 16.3%를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어머니 역할로 전이하게 된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역할 자체를 수용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신체적으로 취업역할과 어머니역할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긴장과 실제적으로 유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시간을 배분해가면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이들에게 더 어려운 요인임을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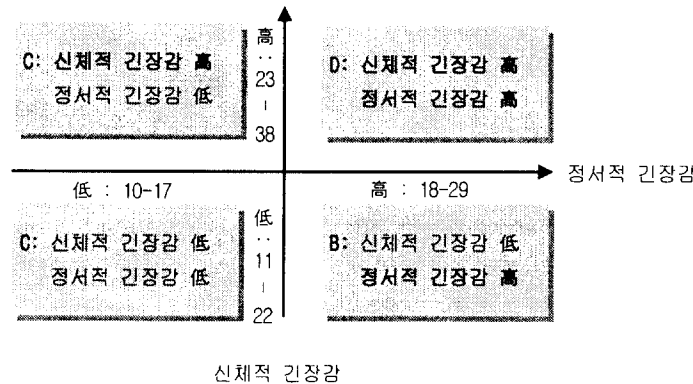
2. 부모로서의 긴장감 유형분류에 따른 취업모의 결혼적응 차이

부모로서의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이 서로 다르게 결혼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을 받는 수준에 따라 유형을 나눈 후 이 두 가지 긴장감의 조합에 따라 결혼적응이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하였다. 두가지 측면의 긴장감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면 취업모 역시 이 두가지 긴장감을 모두 느끼는 유형, 양 측면의 긴장감을 적게 느끼는 유형, 정서적 긴장감만을 많이 느끼는 유형, 신체적 긴장감을 주로 느끼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Graham, Fisher, Crawford, Fitzpatrick 과 Bina(2000)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분석한 방식대로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긴장감의 경우 정서적 긴장감이 낮은 집단은 10~17점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높은 집단은 18~29점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신체적 긴장감이 낮은 집단은 11~22점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높은 집단은 23~38점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4개의 집단이 생성되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집단 A는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 모두가 다 중앙값 이하인 집단으로 81명의 취업모가 여기에 해당된다. 집단 B는 정서적 긴장감이 높으면서 신체적 긴장감은 낮은 집단으로 전부 47명이 여기에 분류된다. 집단 C는 정서적 긴장감은 낮지만 신체적 긴장감이 높은 집단으로 신체적 긴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집단은 전부 48명이다. 집단 D는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전부 94명의 취업모가 여기 해당된다.

다음의 <표 2>에는 이들 4개 집단의 결혼적응을 비교

1) 신체적 긴장감과 정서적 긴장감과의 상관관계는 0.44로 나타났다.



[그림 1] 정서적 긴장감, 신체적 긴장감 분류에 기반한 집단유형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의 결혼적응을 비교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F=12.84(p<001)$ 로 집단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간 평균비교를 위해 schéffe test를 실시하였다. 기대한 바와 같이, 결혼적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이 모두 다 평균 이하로 나타난 집단 A로 평균 115점 정도였다. 다음으로 결혼적응이 높은 집단은 정서적 긴장감은 평균 이상이지만 신체적 긴장감은 평균 이하로서 주로 정서적 긴장감은 많이 느끼는 집단 B에 속한 취업모들 이었다. 이들의 결혼적응은 112점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적응이 높은 집단은 정서적 긴장감은 평균 이하지만 신체적 긴장감은 평균 이상인 집단으로 이들의 결혼적응은 106점 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둔 취업모의 결혼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바로 정서적 긴장감과 더불어 신체적 긴장감을 모두 다 평균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결혼적응은 101점으로 나타나 4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결혼적응을 보고하였다. 이 4개 집단의 결혼적응 비교 결과를 보면, 가장 결혼적응이 높은 집단은 정서적 측면에서나 신체적 측면에서 모두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취업모들 이었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 모두 긴장감을 평균 이상으로 느낀다는 취업모들 이었다. 또한 정서적 긴장감과 신

체적 긴장감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집단 B와 C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집단 B는 집단 A와 상대적으로 유사하며 집단 C는 D와 좀 더 유사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나 부모기 전이 연구에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인 긴장감을 정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으로 분리하여 접근해야 하는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앞서의 연구문제 분석을 통해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부모역할 전환 후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적 지지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갖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완충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이 의미있어야 한다는 Suárez 와 Baker의 주장(1997)에 따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로서의 긴장감과 사회적 지지 모두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

<표 2> 부모로서의 긴장감 집단 구분에 따른 결혼적응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집단 A: 신체적 저/정서적 저	81	114.90(12.29)	12.84***	a>c,d
집단 B: 신체적 저/정서적 고	47	111.62(12.56)		b>d
집단 C: 신체적 고/정서적 저	48	106.00(18.65)		
집단 D : 신체적 고/정서적 고	94	101.43(16.25)		

하 집단으로 나눈 2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로서의 긴장감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분석과 더불어 상호작용항을 검증하였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서적 긴장감과 신체적 긴장감을 분리하여 각기 2회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긴장감의 경우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체적 긴장감의 경우에는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신체적 긴장감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3> 주효과인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긴장감과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따르면 취업모의 정서적 긴장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의 부모역할 전환후 자녀의 존재로 인한 정서적 긴장감은

는 것이다. 반면, 신체적 긴장감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로서의 신체적 긴장감 집단구분에 따른 결혼적응은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의미가 없었다. 즉, 신체적 긴장감을 많이 느끼는 취업모는 적게 느끼는 취업모에 비해 결혼적응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 자체만으로는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이나 많이 받는 집단이나 부모역할 전환후 취업모의 결혼적응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긴장감과 상호작용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의 <표 5>에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와 집단의 신체적 긴장감 보유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른 결혼적응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결혼적응은 110점이며 낮

<표 3>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긴장감의 결혼적응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주효과	사회적 지지	538.96	1	538.96	2.15
	정서적긴장감	2459.61	1	2459.61	9.80**
상호작용효과	사회적지지×정서적 긴장감	174.92	1	174.92	.70
오차		69552.71	277	251.09	
총합		73733.77	270		

주위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되지 않음을 보여주 는 집단은 106점 정도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

<표 4>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긴장감의 결혼적응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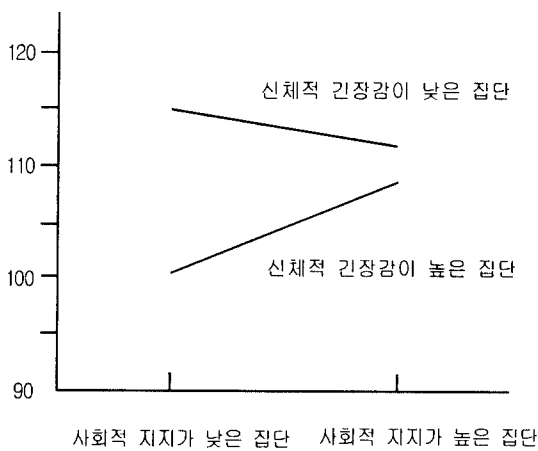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주효과	사회적 지지	667.91	1	667.91	2.92
	신체적긴장감	5292.18	1	5292.18	23.16***
상호작용효과	사회적지지×신체적 긴장감	1293.58	1	1293.58	5.66*
오차		62386.65	273		
총합		69640.34	276		

*p<.05, **p<.01, ***p<.001

<표 5> 사회적지지와 신체적 긴장감 보유 정도에 따른 취업모의 결혼적응

사회적지지	신체적 긴장감	평균(표준편차)	N
낮은 집단	낮은 집단	113.89(11.97)	79
	높은 집단	100.29(16.79)	97
	소 계	106.39(16.26)	176
높은 집단	낮은 집단	112.62(14.23)	50
	높은 집단	108.02(16.86)	51
	소 계	110.30(15.71)	101

단에서 결혼적용 점수 자체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신체적 긴장감이 높은 경우 많은 차이가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신체적 긴장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결혼적용 차이가 13점 정도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4점 정도로 많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긴장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신체적 긴장감이 결혼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그림 2>을 보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역할 전환후 결혼적용이 신체적 긴장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으로 오면, 신체적 긴장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결혼적용 차이가 많이 감소하여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취업역할과 부모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 284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신체적 긴장감과 정서적 긴장감으로 분리했을 때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취업모의 경우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체적 긴장감의 영향력이 더 큰 편이다. 긴장감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신체적 긴장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분류에 기반한 결혼적용 비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역할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긴장감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노동력에 근거한 농경사회에서 갖는 자녀의 특성, 그리고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신체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앞으로의 부모기 전이 과정 연구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부모교육 혹은 예비부모교육에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됨을 준비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늘어나는 양육행동에 대해 어떻게 조절하고 적응할 것인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부모됨의 만족이나 혹은 역할전환과 갑작스런 전이에 대한 부담감을 논의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어려움을 부과하는 신체적인 피로와 준비되지 않은 양육행동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접근하되 부모역할 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적으로 신체적 긴장감을 경감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친족차원에서의 지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근접사회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안내하는 것, 유사한 경험을 지닌 부모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을 돕는 일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지지체계를 마련하는데 계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개별 가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 차원에서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부모역할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입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연구에서 오랫동안 완충기제로서 주목을 받아왔던 요인이다. 그러나 부모기 전이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던 영역이었다.

부모기 전이란 대부분의 가족에서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는 부부에게 있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역할전환과 적응을 강요하는 긴장원이 될 수 있다. 임신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자녀의 탄생은 예비하고 기대하던 부부들에게조차 당황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한 긴장감이 부부의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산을 급격한 저하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기꺼이 자녀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더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여성의 역할이 모성에 우선성을 두던 전통사회에 비해 여성과 가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자녀출산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과 가정 내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받는 양유지원에 관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편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봉사원 제도라든가 혹은 영아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여성인력의 활용 뿐 아니라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비단 단순한 출산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머니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희생을 담보한 선택적 요소를 경감시켜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가 부모기 전이과정에서 완충효과를 갖는다는 점은 부모기 전이과정이 지지가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다루어지지만 부모기 전이와 같이 예측할 수 있고 기대되는 상황에서의 완충효과는 거의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과 마찬가지로 부모 역할 전환후의 어려움도 역시 사회적 지지라는 요인을 통해 충분히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받는 어려움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충분히 주위의 지지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이를 마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모역할 전환후에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사회적 지지가 이 영향의 완충효과는 규명하였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을 보인

다. 첫째, 중요한 연구대상인 취업모의 직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다. 직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취업모가 느끼는 긴장감 수준도 차이가 있으며 이중역할 병행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직업적인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주로 도구적인 지원에 국한하여 봄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지지체계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주 지지자인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를 다룰 수 있는 연구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긴장감과 정서적 긴장감의 분리, 그리고 이에 기반 한 유형분류의 모색,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입증 등을 통해서 부모기 전이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등을 제시한 바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주제어 : 부모로서의 긴장감, 결혼적응, 사회적지지, 완충효과

참 고 문 헌

- 고선주·옥선화(1994).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3 : 부모기 전이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양육분담. *대한가정학회지*, 32(5), 84-97.
-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17-32.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141-150.
- 김만지(2002).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3), 55-66.
- 김영희(1998).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7(2), 11-22
-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박숙자(1991).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사회*

- 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141-180.
- 유우영 · 최진아 ·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명신(2001). 가정 - 직장 양립 스트레스원에 대한 여성 근로자 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7, 201-230.
- 이숙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양육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은혜 · 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정순(2003).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가족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연구. *한국 정서. 행동장애아교육학회*, 18(3), 327-349.
- 이한우 · 권명옥 · 서은정(2001).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특성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1), 193-217.
-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전춘애 · 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 최은규(2003). 운동부 지도교사의 역할 스트레스와 직무탈진이 관계 :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159-174.
-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하우출판사
- 현온강 ·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Florian, v., & Dangoor, N. (1994). personal and familial adaptaion of women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 A further validation of the double ABCX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35-746.
- Gottlieb, B. H., & Pancer, S. M. (1988). Social network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G. Y. Michaels & W.A. Goldberg(eds), *The transitopn to parenthood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342-360. New York: Cambrid university press.
- Graham, C. W., Fisher, J. L., Crawford, D., Fitzpatrick, J. & Bina K.(2000). Parental staus, social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1(7), 888-905.
- Jackson, A.,P. (1998).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parenting for low-income, single, black mothers. *Social Service Review, september*, 365-378.
- Kostelecky, K., L. & Lempers, J., D. (1998). Stress, family social support, distress, and well-being in high school seniors.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7(3), 125-145.
- Scott, J., & Alwin, D.F. (1989).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strain: parental role or gend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82-503.
-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cc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38.
- Suárez, L. M., & Baker, B. L. (1997).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and parent's 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47, 373, 381

(2004. 08. 25 접수; 2004. 10. 04 채택)